

Étude sur la méthodologie de Pascal

KOH WON-HEE

— Résumé —

Tout ce qui est dit, dans les Pensées, de l'oeuvre de notre salut, des initiatives divines et du concours de l'homme, des dispositions qu'il y doit apporter, de la foi, de la prière et du mérite, de notre pouvoir et de ses limites, de notre ultime responsabilité, tout cela, où il y va de notre tout, est inséparable des Écrits sur la grâce, ou Pascal, reprenant l'argumentation des Provinciales, soumet ces notions à une analyse serrée que les Pensées reprendront, à leur tour, en les précisant et les rectifiant sur certains points essentiels. Enfin le précepte suprême de l'amour divin, qui enferme tout, — celui qui l'aime, celui qu'il aime, — ne peut être élucidé que lorsqu'on a vu Pascal, avec sa fougue juvénile, se dresser contre ceux qu'il soupçonne de vouloir en dispenser les hommes, faire effort pour surprendre et pour suivre les mouvements de grâce, et tendre les bras au Libérateur attendu et promis, Jésus-Christ: hors de lui nous ne voyons qu'obscurité et confusion, dans la vie et dans la mort, en Dieu, dans la nature et en nous-même. Jésus-Christ est venu ôter les figures, il a rompu le voile et a découvert l'esprit.

Jésus-Christ est l'objet de tout et le centre où tout tend.

Qui le connaît, connaît la raison de toutes choses. Un Dieu d'amour, de consolation, et de miséricorde infinie ...

La démarche qui conduit Pascal à ce point est la même qui l'a guidé à travers tout l'univers, visible et invisible.

Pour s'y élever, il n'a pas eu à renverser le mouvement de sa pensée; il n'a fait que la suivre jusqu'au bout, en appliquant à ce haut objet les principes et les méthodes même qui avaient inspiré sa recherche et présidé à ses découvertes scientifiques comme à ses investigations en tous domaines. Savant, homme, chrétien, Pascal l'a toujours été: son développement intérieur ne s'est pas fait sur une ligne, mais par un approfondissement pro-

gressif qui, l'amenant à voir chaque chose à plein, le conduit à situer chacune d'elles à sa vraie place, selon l'ordre.

Ainsi, tandis qu'il parcourt la nature entière, tout le ramène au centre de l'âme, qui est le créateur Dieu

En lui, et en Jésus-Christ le Rédempteur, il retrouve magnifique, éclairé, unifié, tout ce que pour Lui il a quitté.

Pascal 의 方法論에 對한 考察

高 元 禧

目 次

- I. 序 論
- II. 方法의 構成
 - (1) 方法의 目的
 - (2) 方法에 있어서의 手段
 - (3) 方法論
- III. 結 論

I. 序 論

16, 17세기 프랑스의 思想家들은 “方法”을 自覺的으로 問題삼은 사람들이 많다. 아니 그보다 오히려 프랑스 뿐만 아니라 Renaissance 以後의 思想家들은 良心的으로 自己의 探究를 展開시키기 爲해 必然的으로 方法을 問題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中世紀의 敎權의 支配下에 놓인 思想에서 近代의 自由的이고 自覺的인 思想을 向해 一大過渡期를 經過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當時의 유럽사상에 共通的인 現象으로서 英國의 베이콘과 뉴우튼 이태리의 레오날도와 갈리레오, 荷蘭드의 스피노자 및 독일의 라이프니쯔등의 方法에 關한 模索과 그 成果는 우리들이 周知하고 있는 事實인 것이다. 이것은 그 時代의 思想史的 位置에서 보아 當然한 現象으로서 그 方法에 關한 思索은 단지 科學, 哲學等的 專門的인 學問的 領域에서 뿐만 아니라 文化的인 모든 영역에 걸쳐 그 內容이 여러가지의 新양스와 人生問題의 解決에 直接的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순수하게 聖書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認識과 人生의 참된 모습을 파악 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 프로테스탄트 神學의 創始者인 칼빈이라든지 經驗의 蓄積과 比較에 의해서 流動하는 人間의 참된 모습을 追求하려고 했던 몽테뉴같은 人生哲學者, 그리고 直觀的인 觀念에서 必然的인 演繹法으로 思考를 하며 人間 精神과 世界와의 體系를 構成하려고 했던 메갈트 그리고 Mellet la Rochefoucau 같이 이 세상의 삶의 展開속에서 人間的 完成의 典型을 形成하려고 試圖했던 社交人들에 이르기까지 各各 獨者의 領域에 있어서 그 目的에 達成하는 方法을 形成하면서도 결국 모두가 人生問題의 解決에 連關을 가지고 歸着하고 있는것을 간주 할 수 가 있다. 이러한 現象은 그時代의 方法論上의 問題가 단지 方法論에 止치지 않고 오히려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人間의 삶의 探求와 관련되어 있는點이다. 다시말해서 概念的이고 抽象的인 哲學과 科學上의 思索을 追求한 Descartes 가 여러가지 經路를 거쳐서 결국 “德”의 形成을 向해 試圖했다는 點을

우리들은 그 主要한 關心事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한 立場에서 그의 모든 業績이 規定이 되고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높이 評價할 일이다. Descartes 의 이와 같은 學問과 倫理의 關係에 對해서는 「哲學의 原理」의 佛語版 序文이 그것을 典型的으로 잘 表現하고 있다. 그의 方法은 勿論 學問을 研究하기 爲해서 理性을 올바르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 目的이었지만 學問은 결국 人間의 올바른 삶의 方法을 試圖해 불러는 것이 그 究極의 目的이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方法의 問題가 人生의 삶과 智慧의 形成의 問題와 관련해서 自覺적으로 追求한 Descartes 에게 그 人生判斷 그 自体가 充分히 考察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Descartes 의 名著 「方法叙說」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처럼 그의 見解는 어디까지나 自己의 精神에 의한 觀念上的 明證의 인 直觀 다시말해서 自己가 가지고 있는 判斷 그 自体의 直接的인 肯定과 主張을 탈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그의 思索은 어디까지나 「自然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Pascal 은 이 方法의 問題에 있어서 Descartes 的인 自然 肯定的인 立場을 超越해서 보다 高次的인 立場에서 있다. 그는 Descartes 가 方法의 基礎로서 前提하고 있는 自然的인 人生判斷을 人格的인 問題로 다루고 있다는 点이다. Pascal 에 있어서의 方法論的 考察은 올바르게 判斷하는 行爲의 規則을 確立해서 그것을 基準으로 하여 判斷을 行하는 自己自身이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意味에서 判斷의 中心이 批判하는 自己를 超越하고 있다는 点이다. 그것은 결코 단지 宗教的 思考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問題의 解決에 있어서 方法의 動向을 規定하고 있다. 換言하면 가장 抽象的이고 一般的인 것으로 生覺되는 幾何學的 思索에 있어서도 Pascal 은 이와같은 立場을 내세우고 있다.

"C'est une maladie naturelle à l'homme de croire qu'il possède la vérité directement; et de là vient qu'il est toujours disposé à nier tout ce qui lui est incompréhensible; au lieu qu'en effet il ne connaît naturellement que le mensonge, et qu'il ne doit prendre pour véritables que les choses dont le contraire lui paraît faux.

Et c'est pourquoi, toutes les fois qu'une proposition est inconcevable, il faut en suspendre le jugement et ne pas la nier à cette marque, mais en examiner le contraire; et si on le trouve manifestement faux, on peut hardiment affirmer la première, tout incompréhensible qu'elle est." (1)

(1) Oeuvres Complètes de pascal, Gallimard, 1954; De l'esprit géométrique (section I), 585-6

모순의 부정을 매개로 하는 幾何學의 方法, 物理學에 있어서의 實驗的 方法, 日常會話에 있어서의 類推的 方法, 또한 聖書解釋에 있어서 象徵的인 解釋에 의한 사랑의 方法이 上述한 特質을 表示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Pascal의 方法은 프랑스·모랄리스트 傳統의 良識(bon sens) 哲學에 基礎를 두는 方法을 通해서 그 特殊的이고 抽象的인 形態가 內包되고 있는 보다 根本的인 立場에 立脚하고 있음을 考察 할 수 가 있다. 良識에 立脚하는 代表的인 哲學者는 Descartes 다. 그러나 Descartes 는 良識의 抽象的인 普遍性和 特殊性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思考와 實踐의 問題 그리고 精神과 身體의 問題에 있어서 超越 할 수 없는 難關에 逢着하고 있다. Pascal 도 일단 良識의 立場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한층 超越하는 立場을 內包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心情에 있어서의 直感인 것이다.

本稿는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Pascal의 方法의 理念을 本質的으로 考察하고 生의 各 領域에 나타난 諸形態를 把握해 볼까 한다.

II. 「方法」의 構成

Pascal의 方法은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交錯하고 結合하고 있다. 人間의 秩序와 神의 攝理의 秩序와의 複合的 및 立體的 背景위에 展開된다. 거기에는 極히 複雜多彩로운 여러가지 要素가 共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神과의 「사랑」의 交叉를 中心으로 하는 實在的 生命의 精髓에 의해서 有機的으로 統一되고 하나의 全體를 構成하고 있다. 本來 諸秩序의 統一의 世界는 어디까지나 行爲의 秩序의 世界이며 靜的인면서도 實體的 世界는 아니다. Chevalier 는 Pascal의 世界를 中世의 大伽藍의 建築的 構成美에 比하여 하나의 有機的 綜合으로 보고 있으나 Pascal 에 있어서의 構成은 이와 같은 空間的 構成美보다는 오히려 多分 立體的 構成美로 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Pascal 에 있어서는 自然도, 人間도, 神도 모두가 動力性을 띠고 發展하고 있다. 실로 Pascal 에 있어서는 모두가 人間의 行爲에 問題가 集中되고 있다. 人間의 삶이 事實上 自覺的으로 신중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그가 如何히 抽象的으로 空間을 論하고 配分의 規則을 吟味하며 物理的 實驗을 構想하고 있는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結局 참된 삶의 追求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모달적인 方向에서 徹底하게 Pascal 을 考察 할때 그의 複雜多樣한 모습의 本質을 把握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Pascal 은 愼重하게 人間의 모습을 追求하면서 內的探求와 發展을 계속하면서 秩序에서 秩序로 飛躍하여 드디어 예수그리스도에 의한 神의 絕對愛속에서 窮極의 實在을 찾아낸 것이다 Pascal 은 經驗을 重視하고 事實을 尊重했다. 物理學上의 實驗이나 「사랑」의 考察을 追求하는 그의 진지한 態度는 이를 肯定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意를 要하는

것은 Pascal 에 있어서의 事實의 意味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약 이 點에 오해를 야기한다면 Pascal 은 平凡한 實證主義者또한 倫理와 宗教의 領域에 까지도 科學的方法을 驅使한 익살스러운 實證主義者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Pascal 에 있어서의 事實은 常識의 方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단순한 客觀的인 事實은 아니다. Pascal 에 있어서의 事實은 獨立的인 意味를 가지고 自己를 主張하며 올바른 理解를 充足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Pascal 은 어디까지나 自己에 의한 意味를 부여 하기를 排斥한다.

「自己는 可憎스러운 것이다」 “le moi est haïssable” (455)

Pascal 은 事實을 規定하고 事實을 事實로서 尊重한다. 여기에서 自己와 事實과의 關係가 궁극적으로 決定되는 것이다. Pascal 은 이와같이 事實的 意味連關을 忠實히 지키면서 그 리스도에 對한 絶對愛의 事實에 到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考察할때 Pascal 은 實在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窮極的인 直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實在性은 對象 그 自体가 스스로 保證한다. 따라서 上記와 같은 立場에 到達한 그는 全體的이며 統一的 및 綜合的으로 事物을 判斷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統一과 綜合은 意味의 統一이며 綜合이었다. 따라서 그는 個個의 事實을 按排해서 그것을 意味連關속에 排列할 수가 있었다. Pascal 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Qu'on ne dise pas que je n'ai rien dit de nouveau: la disposition des matières est nouvelle; ……” (2)

Pascal 은 1658年頃 Port · Royale 의 사람들에게 自己의 護教篇의 大綱을 論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排列를 決定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 自身 「그것을 完成하기 爲해사는 아직 十年의 健康이 必要하다」고 말하고 있고 1662년에 그의 죽음은 그 問題를 永遠히 未解決로 끌고 갔다.

“La dernière chose qu'on trouve en faisant un ouvrage, est de savoir celle qu'il faut matières la première” (3)

이상과 같은 言及으로 보아 우리들은 Pascal 이 現實적으로 어떠한 順序로서 論議를 展開하려고 했든가를 充分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方法 그 自体의 構成을 알아 내는 데 何等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點에 關해서 資料는 오히려 豊富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서 Pascal 의 方法을 論하는 對象이 되는 것은 말할 必要도없이 그의 (Pensées)

(2) Pensées, 65, P. 1101

(3) Idid, 63, P. 1101

를 통한 方法인 것이다. 大體로 Pascal은 단지 宗教家일 뿐만 아니라 特別히 卓越한 幾何學者이며 物理學者이고 또한 어떤 意味로 보아서 哲學者이었다. 그는 各分野의 領域에 있어서 顯著한 業績을 남기고 있고 또한 그러한 分野의 領域의 方法論에 關한 古典的 著述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Pensées」의 方法이야 말로 Pascal 그 人間의 方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Pascal의 秩序를 考察해 보면 찾아낼 수 있는 點이지만 Pascal은 事物을 分析的으로 보지않는다. 즉 全體로서의 意味를 생각한다. 따라서 全體로서 考察하는 경우 그 背景如何에 의해서 하나의 事實이 여러가지 相異한 意味를 內包하기에 이른다. Descartes가 對象을 可能限 小部分으로 分割하여 分析的 要素로 考察하는 경우와는 完全히 다르다. 그래서 事物에 여러가지 意味를 부여하는 背景은 秩序의 相異에 依存한다. 秩序가 있으면 그에 따른 綜合的인 意味連關을 考察할 수가 있을 것이다. Pascal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秩序가 特殊한 發展段階를 거치고 排列되고 있다. 그래서 下位의 段階는 보다 高次的인 段階에 포함되며 밀받침이 되어있고 또한 밑에서 위로 向하는 進지한 自己否定이 아니고서는 넘어 설 수 없는 無限한 深淵에 가로 막히고 있다. 그러므로 同一한 것이 下位의 秩序에서 上位의 秩序로 나아감에 따라 아주 相異한 새로운 意味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展開過程은 論理的인 論證에 의해서 同一한 次元을 바르게 展開해 가는 平坦한 것이 아니라 背景을 不斷히 考察하면서 行爲的으로 몹시 自己否定을 實行하여 內的發展을 이루면서 새로운 背景을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즉 直觀 그 自體의 發展인 것이다. Pensées의 構造의 核心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正보다 反을 向해 持續적인 轉換이라든지 結果의 理由같은 것이 모두가 이와 같은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겠다. 또한 이러한 方法은 心情의 秩序에 의해서 充分히 나타나고 있다. Pascal은 「Pensées」(183)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L'ordre—Contre l'objection que l'Écriture n'a pas l'ordre — Le coeur a son ordre; l'esprit a le sien, qui est par principe et démonstration, le coeur en a un autre. On ne prouve pas qu'on doit être aimé en exposant l'ordre les causes de l'amour: cela serait ridicule.

Jesus-Christ, Saint Paul ont l'amour de la charité, non de l'esprit; car ils voulaient échauffer, non instruire. Saint Augustin de même. Cet ordre consiste principalement à la digression sur chaque point qui a rapport à la fin, pour la montrer toujours.” (4)

(4) Idid, 72, P. 1102

요약하면 그것은 삶 그 自体의 內面的인 秩序에 순종하는 것이다. 整然한 體系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體系보다 한층 彈力性和 永續性이 엇보인다. 이러한 方法은 삶 그 自体에 대한 原理이기에 누구나가 다시 말해서 大衆도, 회의론자도, 獨斷論者도, 無信仰者와 信仰者도 그들의 屬하는 秩序에 따라 그것을 어떠한 意味에서 理解할 수가 있을 것이다. 허지만 完全한 그리스도 信者들만이 그것을 充分히 理解할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이야 말로 最高의 秩序에서 있기 때문인 것이다. 各者는 自己들의 屬하는 秩序에서 Pascal의 秩序속에 파고 들어가 그의 見解에 따른다면 最高의 秩序에 까지 다달 수가 있을 것이다. 心情的 秩序에 있어서 眞實되게 行爲하는 사람들만이 참되게 理解할 수가 있다. Pascal의 方法은 이와 같은 秩序에 속한다.

(1) 方法의 目的

Pascal은 1654년 11월 23일 밤 그리스도에 대한 經驗에 의하여 그의 內的發展의 最高段階에 도달했다. Pascal의 內面的生命은 언제나 새로운 背景을 展開하면서 秩序에서 秩序로 飛躍하며 特殊의이고 一面的인 秩序에서 普遍의이고 全體的 및 包括的 秩序으로 向하고 있다. 이와 같이 Pascal의 人生原理가 進展함에 따라 그와 對照해서 그의 方法도 不斷히 發展되고 있다. Pascal에 있어서 方法의 目的은 그 方法의 基礎가 되는 最高의 秩序를 영혼에 對해서 現實的인 것으로 되게 하였다. Pascal은 自己의 영혼의 경우는 한가지 일에 專念하면서 自己를 버림으로서 眞理의 源泉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을 反省하고 方法을 構成하며 그 위에 他의 영혼을 움직이게 할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우선 Pascal의 目的하는 바를 闡明해 둘 必要가 있다. 그 目的 그 自体가 그의 方法을 한층 明確히 限定하기 때문이다. 秩序의 觀念을 생각 해 볼때 Pascal의 目的은 많은 科學者와 哲學者들의 目的하는 觀念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特히 實踐的인 것이며 道德的이고 또한 宗教的인 것이었다. Pascal은 人間들에게 그의 참된 人生의 目的을 가르치고 그것을 實現하려고 했다. 즉 人間들로 하여금 철저히 자기의 삶의 意味를 自覺시키고 삶의 새로운 發展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Pascal은 그의 目的定立을 抽象的인 飛躍으로 遂行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良識에 立脚하면서 現實의 삶의 分析으로 출발하며 그 自身도 體驗에 의하여 綜合的으로 주어진 目的을 歸納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目的定立에 있어서 이미 方法的이었다. 現實性的인 實相을 直視하고 人間들이 目的으로서 不斷히 追求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다. Pascal은 이점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Nonobstant ces misères, il veut être heureux, et ne veut être qu'heureux, et ne peut ne vouloir pas l'être; mais comment s'y prendra-t-il? Il faudrait, pour bien faire, qu'il se rendit immortel; mais, ne le pouvant, il s'est

avisé de s'empêcher d'y penser.”(5)

“Tous les hommes recherchent d'être heureux: cela est sans exception, quels différents moyens qu'il y emploient, ils tendent tout à ce but. ……

La volonté ne fait jamais la moindre démarche que vers cet objet. C'est le motif de toutes les actions de tous les hommes, jusqu'à ceux qui vont se pendre.”(6)

이와 같이 Pascal은 現實의인 幸福追求의 分析에서 目的이되는 神을 그 結論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目的이 되는 神은 現實의인 幸福追求의 理念은 되지만 그것은 秩序와는 다르다. 幸福追求은 無際限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결코 神에게 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神에 이르는 길을 提示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Pascal은 主張한다.

“notre unique félicité est d'être en lui, et notre unique mal d'être séparé de lui; ……”(7)

現實의인 人間들은 神을 찾으려 하면서 외딴것을 찾고 있다. 그들은 習慣에 따르고 慰戩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은 盲目的이다. 神을 떠난 그들의 모든 것은 神以外的 것이 神의 代用物이 된다.

“Les uns le cherchent dans l'autorité, les autres dans les curiosités et dans les sciences, les autres les voluptés” (8)

그러나 神의 代用物로서는 아무도 滿足할 수가 없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염없는 追求를 계속할 따름이다. 여기에서 重要的 것은 人間들이 이와 같이 쓸모없는 追求를 계속하면서도 神을 찾는 일에 소홀히하고 회피하는 경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人生의 中心을 自己以外的 것에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 自体가 獨自의이고 完成的인 存在가 아니라 무엇이 다른 絕對者인 힘에 의해서 비로소 完成될 수 있는 存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들은 이것을 갖은 手段을 驅使해서 피하려고 한다. 自己속에서 自己를 찾는 즉 어떠한 善을 찾아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他에서 찾아야 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人間들은 그 點에 對해서 無關心하다. 그것은 怠惰과 傲慢이 結合된 所望이 없는 狀態인 것이다. 人間은 自己의 可能 圈內에 있는 여러가지 것을 追求하며 生存한다. 그러나 그러한 次元을 파괴하는 神을 찾는

(5) Idid, 214, P. 1147

(6) Idid, 370, 1184-5

(7) Ibid, 483, P. 1223

(8) Ibid, 370, P. 1185-6

거와 神을 中心으로 하는 것은 嫌惡한다. 그러나 여기에 重大한 問題가 있다. 그것은 「死」의 問題다. 人間은 有限者로서 無限者앞에 必然的으로 自己가 처해야 할 올바른 삶의 姿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問題는 이미 賦課되어 있고 이야말로 人間의 가장 現實的인 모습이 다. 人間은 實在者와 直面하고 있다. 이것이 人生의 眞相이다. 죽음에 直面했을때 그것은 가장 예리하고 엄숙하게 우리들에게 부딪치는 問題다. 그렇다면 人間이 거기에 對해서 要求되는 것은 完全한 誠實과 眞理를 찾는 소망인 것이다. 이렇게 人間은 現實的인 誠實한 分析을 通하여 중심으로 神을 찾기에 이른다. 人間이 追求하는 幸福과 神에 의한 福祉와 非連續性이 여기에서 애매하게 생각될 可能性도 없지않다. 하지만 그것은 Pascal 을 內在的으로 觀察하기 때문이다. Pascal 에 있어서의 目的定立이 神을 目的으로 해서 定立한다는것은 神의 觀念을 높이 서게하는 것과는 다르다. 중심으로 神을 찾는 마음을 길러내는데 있는 것이다. Pascal 의 目的定立은 目的實現의 가장 重要한 出發點을 確實히 하는데 있다. 거기에 또한 Pascal 의 方法行使의 重要한 領域이 存在한다. Pascal 의 神에 의한 目的定立의 內容은 人間으로 하여금 모든 人間中心的인 目的定立을 포기하는데 있다. Pascal 의 方法은 이와 같은 paradox 에서 出發한다. 따라서 目的을 否定하는 目的定立은 저절로 人間을 心情의 秩序에 내 세우게 한다.

(2) 方法에 있어서의 手段

(Pensees)의 方法의 第一段의 目的은 上述한 바와 같이 人間에게 心情의 秩序를 내 세우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후에 그는 神의 啓示를 믿게되고 참된 確實性에 이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Pensées)의 第二段의 目的이고 第一段의 目的과 心情의 秩序위에 展開되는 그리스도 經驗과 聖書解釋 그리고 敎會의 問題 그것이다. 그는 이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으로서 自己가 確實性에 이른 過去의 全經歷을 회고하면서 그 속에서 手段을 끌어 낼려고하고 있다. 위선 그는 科學者로서 如何한 方法을 가지고 思索을 했는가? 結局은 하나로 歸着하는 것이지만 그의 科學的 思索은 두가지 點으로서 特色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그가 스킨라적인 知識을 記憶해서 反復하는 것을 경멸하여 어디까지나 自己의 良識을 基礎로 해서 스스로 確實性을 찾으며 科學的 分野를 새롭게 構成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그가 對象으로 삼는것은 人間에게 自由로히 操作되는 概念體系가 아니다. 그것은 無限히 豐富한 事實의 世界이었다. 그러한 世界에 그는 스스로 自意識에 의한 判斷을 唯一한 武器로 삼고 事實 그 속에서 밝혀지는 意味連關에 따라 體系를 찾아낸 것이다. 여기에서 第二의 特色으로 이 體系는 언제나 未完結의 狀態에 拘친다고 말할 수가 있다. Chevalier 도 實在者는 우리들의 觀念作用을 無限히 超越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直觀性과 超越性이 Pascal 이 생각하는 科學의 두가지 特徵이 되고 있다. Pascal 에 있어서 數學全體는 無限의 觀念에 基礎를 두고

있다. 幾何學者에게 延長은 無限히 分割할 수 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無限分割 그 自体는 人間의 理性으로서는 不可能하다. 無際限의 分割過程만이 있을뿐이다. 작은 空間이나 큰 空間이나 간에 同一하게 分割된다. 一定한 空間을 계속해서 分割한다 해도 分割的 要素는 不可能한 段階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無限의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들의 觀念能力을 基準으로 해서 判斷을 내려서는 안된다. 幾何學은 그 밖에 모든 事物의 共通의 人 特質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것은 두가지의 無限 즉 最大의 無限과 微小한 無限에 관한 觀念과 또한 거기에 關係해서 그것은 次元의 非連續性의 觀念인 것이다. Pascal 은 이와 같은 問題를 數學的으로 證明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重要視하여 考察할 것은 그러한 思索을 통해서 어떠한 思索을 必然的으로 行하는 人間 그 自体의 모습에 對한 直觀的인 통찰을 가지는데 있다. 諸次元의 非連續性, 어떤 次元의 量에 對한 低次元의 量, 다시 말해서 그 構成要素가 되는 量에 대한 異質性, 各次元에 對한 二重의 無限性, 어떠한 數學的 考察에서 그는 秩序의 問題로 飛躍하여 無限속에는 異質的인 秩序가 存在한다는 것과 下位의 秩序는 高次的인 秩序에 의해서 無視되어 버린다는 것, 有限은 無限앞에 消滅된다는 것을 直觀하여 그의 有名한 三秩序의 構成을 考察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物体와 精神間에 精神과 사랑간에 人間의 正義와 神의 正義間에는 非連續性이 支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物体를 增加하드레도 거기에는 精神이라는 要素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세가지 秩序에 못지않게 重 한 것은 세가지 秩序속에 內包하고 있는 自然의 二重의 無限性이다. 그것은 無限大와 無限小의 사이에 不斷한 運動으로서 그 두가지의 極限에는 결코 到達할 수가 없다. 그 두가지의 極限은 次元을 달리하는 神에 의해서 一致하고 있다. 그 關係는 延長에 의해서가 아니라 運動에 의해서 또한 時間에 의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無限과 無의 中間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考察을 人間에게 適用할 때 自然的 存在로서의 必然的 規定을 가지고 人間으로서 또한 中間者로서의 自覺에 이르게 된다. Pascal 은 〈幾何學的의 精神〉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Mais ceux qui verront clairement ces vérités pourront admirer la grandeur et la puissance de la nature dans cette double infinie qui nous environne de toutes parts, et apprendre par cette considération merveilleuse à se connaître eux-mêmes, en se regardant placés entre une infinité et un néant d'étendue, entre une infinité et un néant de nombre, entre une infinité et un néant de mouvement, entre une infinité et un néant de temps. Sur quoi on peut apprendre à s'estimer à son juste prix, et former des réflexions qui valent mieux que tout le reste de la géométrie même.” (9)

이처럼 Pascal 은 Descartes 와 같이 良識에서 出發하면서도 그 把握하는 直觀은 Descartes 처럼 直接的이 아니고 모순자의 부정을 介在하는 媒介의인 것이 그 特色이다. Pascal 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主張하고 있다.

"Il n'y a point de géomètre qui ne croie l'espace divisible à l'infini. On ne peut non plus l'être sans ce principe qu'être homme sans âme Et néanmoins il n'y en a point qui comprenne une division infinie; et l'on ne s'assure de cette vérité que par cette seule raison, mais qui est certainement suffisante, qu'on comprend parfaitement qu'il est faux qu'en divisant un espace on puisse arriver à une partie indivisible, c'est-à-dire qui n'ait aucune étendue Car qu'y a-t-il de plus absurde que de prétendre qu'en divisant toujours un espace, on arrive enfin à une division telle qu'en la divisant en deux, chacune des moitiés reste indivisible et sans aucune étendue, et qu'ainsi ces deux néants d'étendue fissent ensemble une étendue?"¹⁰⁾

여기에서 Pascal 은 無限의 問題를 確率의 問題에 導入하므로써 存在의 確率과 幸福의 確率을 交叉시키며 神에 對한 認識問題에 對해서 人間의 無關心을 打破하는 近代의인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物理學이 이 方法의 分野에 있어서 Pascal 에게 가르친 것은 經驗의 優位이었다. 數學과는 달리 物理學은 演譯의 出發點이라는 直觀이 없다. 哲學者들이 主張하는 原理는 다만 저마다 想像으로 捏造한것에 不過하다. 人間은 原理를 事實에 立脚하여 構想하고 그 構想된 原理가 이루어 놓은 事實의 原理가 어떠한 實驗을 構成해서 實證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원래 이 事實이라는 말은 人間의 構想的인 原理에 의해서 構成되어진 實驗에 限定된 것으로 그 點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相對的이지만 事實이 最後의 基礎라는 點은 變함이 없다. 事實이 理論과 相反할때 理論은 事實에 굴복하여 自己를 否定하며 修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經驗이야말로 物理學의 唯一한 原理라고 Pascal 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物理學에만 한하지 않고 現實을 올바르게 認識하려고 할때 언제나 필요한 原則이 되는 것이다. 理性은 이러한 方向에 의해서만이 作用을 해야한다. 理性은 주어진 原理위에서 움직이고 스스로 獨立해서 作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것은 本來가 心情의 秩序에 속하는것이다. 勿論 이 경우의 經驗은 經驗論 哲學의 意味에서 말하는 經驗임은 말할 것도 없다. Pascal 은 단지 一定한 體系 위에서 思考를 하며 體系를 構成하는 科學者는 아니었다. 그는 人間의 感情, 情念, 偏見, 不安全和 動搖를 알았고 또한 그들의 理由 즉 단순한 心理的인理

(9) Ibid, De L'esprit géométrique, section I, P. 591

(10) Ibid, section I, P. 585

由가 아니라 좀더 깊은 存在論的 理由를 認識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人間的인 生의 現實의 모습을 充分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어떠한 人間的인 삶도 찾아낼려고 하는가 하면 抽象的인 科學도 결국은 他人이 평가를 받기 爲한 研究活動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니까 참된 學問은 人間의 學問이고 참된 方法은 外面的이고 論證的인 方法이 아니라 生의 原理의 複雜性과 個別性이며 스스로 內側에서 眞理를 깨달음으로서 類推的이고 解釋的인 方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方法은 여러가지 의미에 있어서 Pascal의 方法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科學的 考察의 成果는 이러한 人間의 方法에 內包되어 비로소 具體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Pascal은 겸허한 그리스도 信者였다. 그는 神을 經驗했다. 그러나 그 經驗은 以前의 科學的 經驗이나 人間의 經驗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이 神에 對한 經驗은 人間에 屬하는 面이나 心情的인 面과 神에 屬하는 面 즉 超越的인 面이 合一한 것이다. 그것은 眞實한 意味에 있어서 神과 人間과의 交叉인 것이다. Pascal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Ainsi, sans la faim des choses spirituelles; on s'en ennuie. Faim de la justice: béatitude: huitième” (11)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神의 품안에 자기를 안겼다. 이 찾는 心情은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充足되었다. 보다 正確히 말하면 예수·그리스도에 순종하므로써 그는 참된 滿足과 確實性을 얻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聖書에 의한 그리스도이며 全聖書가 그리스도의 背景에서 있다. 그리스도와 聖書는 아주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있다. 따라서 心情과 그리스도와 聖書의 關係는 聖書를 통해서만이 可能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것을 可能하게 하는 聖書 解釋의 問題가 일어난다. 이 解釋을 통해서 영혼과 神과는 交叉된다. 이것이 「사랑」이 事實이다. 聖書 解釋은 科學的 方法또한 人間的 方法과 같은 對象의 本質과 相關하면서 個別的 對象의 轉換으로 바꾸어 自己를 中心으로 세워놓는 方法은 아니다. 聖書 解釋은 聖書 그 自体의 內面에 規定된 解釋으로서 그 밖에 適用되어야 할 對象이 없다면 他에서 이를 規定할 수가 없다. 즉 唯一한 對象에 對한 唯一한 方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스킨의 用語를 사용하면 이 解釋에 있어서는 本質과 存在를 하나로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本質은 그 무엇으로도 해석하기란 難解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立場에 立脚하여 其他의 여러가지의 生의 領域은 固有한 秩序를 가지면서 內面的으로 統一이 되는 것이다.

3. 方法論

Pascal의 方法은 理性, 習慣, 靈感의 三段階를 거쳐 發展하지만 이것은 精神, 心情, 사랑

(11) Pensées, 253, P. 1155

의 세가지의 秩序로 對應하고 있다. 그리고 이 三段階는 하나의 全体에 配合해서 分離할 수 없이 結合하고 있다. 그것은 세가지의 秩序가 下降的으로 차차 下位의 秩序를 포섭해서 統一的인 全体를 形成하고 있다. 첫째 方法은 幾何學的 方法으로 定義와 證明을 그 內容으로 하고 人間에게 있어서 보다 完全한 順序를 나타낸다. 幾何學的 精神에서 Pascal 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Ce qui passe la géométrie nous surpasse;” 12

“La méthode de ne point errer est recherchée de tout le monde. Les logiciens font profession d’y conduire, les géomètres seuls y arrivent, et, hors de leur science et de ce qui l’imite, il n’y a point de véritables démonstrations” 13

그러나 여기에서 이 方法을 幾何學 그 自体의 方法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幾何學은 그 方法이 實現될 一例로서 方法 그 自体는 오히려 一般的이다. 그것은 定義와 論證에서 成立된 모든 思索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Pascal 은 그 方法을 幾何學 以外 즉 物理學이나 神學的 論爭 또는 聖書解釋에 適用시키고 있다. 그것은 그의 方法論上에 나타나는 本質的인 一要素인 것이다. 幾何學的 方法은 明證性的 直觀과 그 確證을 核心으로 해서 構成된다. 우리들은 典形的인 實例를 Descartes 의 方法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 Pascal 의 方法은 여러가지 根本的인 相違點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點에서는 Descartes와 軌道를 같이한다. Pascal 의 方法은 그 自身이 體得한 眞理의 事實을 他的 영혼속에 살아 움직이게 할려는 方法이며 그것은 本來가 分析的인 것이 아니라 結合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分析은 綜合이 前提된 그 위에 있는 것이다.

Pascal 은 「幾何學的 精神에 對해서」의 序頭에서 眞理의 研究에는 세가지 主要한 對象이 있다고 言及하고 있다. 探求하는 眞理를 發見하는 “trouver”와 所有하고 있는 眞理를 證明하는 “prouver”와 眞理를 虛偽에서 識別하는 “discerner”를 判斷하는 것이다. Pascal 이 取扱한 것은 未知의 眞理를 發見하는 分析的 方法이 아니다. Descartes 가 소위 眞理의 探求는 未知의 對象을 既知의 要素에 還元하는 分析的 方法에 의한 것이었다. 既知라는 것은 Pascal 의 表現에 의하면 所有된것 혹은 찾아낸것으로 直觀되어진것과 다를바가 없다. 그것은 一般的인 根據에 의해서 確立되고 그 構成을 展開하는 것이다. Pascal 은 幾何學的 方法을 範例로 해서 證明의 一般的 方法의 核心을 闡明하려고 했다. 幾何學만이 證明의 規則을 完全히 지키기 때문이다. 그 方法은 두가지의 重要한 論理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各 各 命題를 證明하는거와 또한 모든 命題를 最上의 秩序에 排列하는 것이다. 따라서 幾何學

(12) De l'esprit géométrique, section I, P. 577

(13) Ibid, section II, P. 601

的인 즉 方法的인 完全한 證明의 運營의 規程과 完結한 秩序가 論해 진다. 이 두가지를 並行하면 全體的인 眞理의 運轉이 드러난다. 우선 證明의 方法이 論述되고 모든 用語가 定義되며 모든 命題를 證明하게 된다. 이것이 眞正한 證明의 方法의 理念인 것이다. 이 경우의 定義는 事物의 概念的인 內容規定이 아니라 論理學者에 의해서 名辭的 定義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와 같이 眞正한 方法은 모든 用語를 定義하고 또한 모든 命題를 證明한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은 絶對的인 意味로서는 實行될 수 가 없다. 人間은 이 以上 定義할 수 없는 用語와 命題에 直面하게 된다. 人間은 어떠한 學問을 가지고도 完結한 秩序속에서 處理할 수 가 없다. 確言하면 人間理性은 그 對象을 合理的으로 處理해 나갈 수가 없다. 즉 人間の 理性에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懷疑論에 빠질 必要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秩序가 있다. 그것은 幾何學의 秩序로서 完全히 論證的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確實性에 있어서는 眞理의 基準에 달하고 있다. 幾何學에 있어서의 究極的인 要素는 그 自体가 明證的인 것으로 定義와 論證을 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을 올바르게 適用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定義와 證明과의 術에 說得術을 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幾何學의 方法은 說得術을 適用시키므로써 비로소 人間の 世界에서 驅使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術에는 一定한 規則이 없다. Pascal은 다음과 같이 說得術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다.

“Cet art que j'appelle l'art de persuader; et qui n'est proprement que la conduite des preuves méthodiques parfaites consiste en trois parties essentielles: à définir les termes dont on doit se servir par des définitions claires; à proposer des principes ou axiomes évidents pour prouver la chose dont il s'agit; et à substituer toujours mentalement dans la démonstration les définitions à la place des définis.” ④

幾何學의 方法은 그것이 具體的인 要件을 基礎로 하는 限 人間の 中間性과 被造性 그리고 運動性을 結論지운다. 그러나 이것은 明白한 結論이라 하더라도 人間の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自己를 中心으로 해서 他를 追求하는데 無關心한 사람들은 오히려 自己들이 처할 人間の 完全性의 妄想을 基準으로 해서 그 明白한 結論을 否定하려고 할지 모른다. 人間을 그 心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幾何學의 方法만으로는 不充分하다. 거기에는 完全한 사람들의 生活 原理와 快樂의 原理에 立脚한 他의 方法을 適用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 秩序의 原理에 基礎를 세우는 人間을 움직이는 術이 登場한다. 이 術이 纖細한 精神으로서 情念的인 「사랑」의 充足이 術의 目的이다. Pascal이 말하는 纖細한 精神은 定

④ De l'esprit géométrique, Section II (De l'art de persuader) P. 596

義와 原理에서 出發하여 推論에 의해서 證明하는 幾何學의 方法의 圈外에 있으며 혹은 오히려 幾何學의 方法을 內包하여 그것을 方向과 意味를 부여케하는 人間의 마음의 內面的 生活을 全体로서 把握하고 解釋하고 있다. 또한 섬세한 정신은 이 세상에서 人間의 交叉속에서 形成되는 것으로서 人間, 具體的, 現實的, 또한 全体的인 人間 存在에 對해서 問題로 삼고 있다. 그것은 具體的인 삶 的 現實 그 自体에서 삶 그 自体의 一部로서 나타나는 方法이다. 이제 이 方法으로서의 섬세한 정신을 考察해 볼까 한다. 우선 이 方法은 그 對象이 人間이라고 하는 點에서 幾何學의 精神과 顯著한 差異가 있다. 人間은 自己속에 中心을 갖는 存在로서 그 運動은 如何히 복잡한 機械의 運動이라도 本質的으로 다르다. 따라서 그것은 靜的인 幾何學의 方法 혹은 運動을 正지시키기 爲해 還元하려는 解析的 方法을 가지고서는 根本的으로 把握할 수는 없다. 즉 그것은 靜的 體系속에서 處理할 수 가 없다. 纖細한 精神에 對해서 Pascal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es principes sont si déliés et en si grand nombre, qu'il est presque impossible qu'il nen échappe. Or, l'omission d'un principe mène à l'erreur; ainsi il faut avoir la vue bien nette pour voir tous les principes, et ensuite lesprit juste pour ne pas raisonner faussement sur des principes connus⁽¹⁵⁾

이와 같은 見地에서 볼때 纖細한 精神은 根本的으로 人間사이에 直接的인 交涉속에서 成立하는 秩序인 것이다. 그러나 섬세한 정신이 하나의 方法으로서 成立하기 爲해서는 이 相互關係속에서 어떠한 秩序와 根本的 要素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人間은 幸福을 追求하는 存在로서 보다 究極的으로는 그것을 相互關係속에서 찾아낼 수 가 있기 때문이다. 人間의 모든 영위는 이러한 삶 的 秩序속에서 비로소 그 意味를 찾아낸다. 섬세한 정신은 이 人間存在의 現實을 分析하고 그것을 그 目的에 가장 有利하게 適用시킬려는 方法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價値判斷이며 實踐的 判斷인 것이다. 人間은 快樂의 原理에 따라서 自己의 內心에서 類推的으로 人間의 表現을 解釋한다. 그러나 이 表現은 그 目的의 中心이 언제나 그 원천이 되는 自我에 있기 때문에 그 表現解釋은 自己를 基準으로하는 解釋이며 相對方的 解釋도 同一하다. 따라서 거기에는 絶對的인 確實性은 元來가 存在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확실히 어떠한 直觀이 成立될 수 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感情的이며 情念的인 直觀으로서 本質的으로는 一方的인 것이다. Pascal 은 이 섬세한 정신을 相對方에게 그 中心을 두고 活用하고 있다. 그것을 活用하여 自己가 目的하는 心情의 秩序를 追求하려고 하고 있다. 幾何學의 方法이 本質的으로 指示하고 있는 心情의 秩序를 참으로 現實化하기 爲해 섬세한 정

(15) Ibid, pensées, 21. P 1092

신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兩者가 실로 有機的으로 結合할 때 그것은 좀더 強力하게 그 힘을 發揮하게 된다. Pascal은 그것을 「賭」에서 試圖하고 있다. 많은 學者들이 지적하고 있는것 처럼 그것은 元來가 神의 存在를 證明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精神을 心情에 轉換시키려고 하는데 있다. 精神의 原理에 의한 최후의 有力한 努力이다. 또한 섬세한 정신에 의한 現實解釋의 推理論이 提示된다. 現實的인 生의 營爲는 모두가 慰戩이다. 그러나 人間이 悲慘을 悲慘으로 自覺할때 그것은 더욱 自覺的 存在로서의 人間의 偉大性을 낳게한다. 自覺的 存在로서의 人間은 이와같이 悲慘과 偉大性과의 모순 즉 二重的 存在인 것이다. 「賭」는 이 모순자인 人間에게 人生判斷과 決斷의 必然性을 그리고 精神의 秩序와 心情의 秩序와의 分岐點을 不可避하게 指示하고 있다. 그런데 人間은 精神의 秩序로는 이 以上 安住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心情의 秩序에 나아갈 決斷을 내리지 못한다. 幾何學의 精神과 纖細의 精神에 의해서 縱橫으로 發揮하여 自己起越의 限界까지 밀고 나가는 判斷力과 理性은 여기에서 決斷을 내리는데 無力하다. 지금까지 幾何學的 方法의 對象도 纖細한 精神의 對象도 결코 참된 確實性을 두지 않았다. 그것은 他人에게 積極的인 自己啓示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참된 確實性을 事實的으로 形成하는 것이 Pascal의 方法의 究極的인 目的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Pascal의 方法의 解明은 점차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方法과 그 適用되는 對象과 目的이 이미 各各 個別的으로 考察할 수 없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것은 Pascal의 決定的인 그리스도 經驗 그것으로서 Pascal의 方法 그 自体의 究極的인 源泉이 된다. 그것은 Pascal의 있어서 단지 方法의 對象이 아니라 方法 그 自体의 母胎가 되는 純粹事實이며 純粹直觀인 것이다. Pascal은 이 事實을 可能限 展開시켜 人間의 心情에 호소하고 있다. 勿論 論理的으로는 모순이다. 그러나 Pascal은 이 모순을 감히 추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崇高한 事實이 眞實로 絶對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Pascal의 方法은 여기에서 人生의 가장 根本的인 事實에 進入한다. 그것은 모든 方法과 分析의 基礎가 되어야 할 事實이기 때문에 人間을 초월하여 神과 人間과의 共同的인 作業이 되는것이다. Pasca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i ce discours vous plaît et vous semble fort, sachez qu’il est fait par un homme qui s’est mis à genou auparavant et après, pour prier cet Être infini et sans parties, auquel il soumet tout le sien, de se soumettre aussi le vôtre pour votre propre bien et pour sa gloire; et qu’ainsi la force s’accorde avec cette bassesse.” (16)

(16) Ibid, pensées, 451, P, 1216

上述한 Pascal 의主張은 그의 方法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內的發展과 方法行使를 UNGJEPSIKIN 핵심인 것이다. 그것은 이에 단순한 方法이 아니며 그렇지 않는 경우 그의 方法의 構成要素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見地에서 內部構造를 考察할까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問題와 聖書解釋의 問題 두가지로 要約할 수가 있다. 이 두가지는 各各 Pascal 研究에 있어서 重要的 特殊問題로서 取扱되고 있다. 方法上으로 重要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經驗에 의해서 비로소 참된 確實性이 주어진점과 그 經驗은 方法的으로 自覺한 人間의 모순을 진실로 해결하게한 點 또한 人間의 側面에서 神을 追求해온것이 自覺됨으로서 判斷의 中心이 오히려 전환되는 點이다. Pascal 의 方法은 本質的으로 他者를 前提로 하고 있다. 그 追求하는 確實性은 自己確實性이 아니다. 自他的 交叉에서 일어나오는 確實性 즉 사랑의 確實性으로서 他者에 關한 自己의 판단의 直觀的 確實性 다시말해서 自己 確實性은 아닌것이다.그러면서도 Pascal 이 適用한 方法은 絶對的 確實性에 到達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人格的이며 道德的 確實性이며 또한 倫理的인 問題가 가장 究極的으로 現實的이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對한 經驗은 영혼에 平衡과 平和와 安息을 줄수 있었다. 그것은 內的 모순에서 일어나오는 不斷한 運動, 焦燥, 慰戢의 追求에 對立하는 것으로 內的모순이 실로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있음을 表示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見地에 立脚해서 비로소 人間은 진실로 神과 自己를 認識할 수가 있다. 心情的 秩序는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에 의해서 진실로 現實的인 것이 된다. 이러한 事實은 지금까지 無關心이었던 自己의 속죄를 自覺하게 되고 自己를 증오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自己를 찾는 人間들이 自己 追求를 中斷하고 神을 찾아 그 聖旨를 實現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완전히 判斷의 전환인 것이다. 神의 自己啓示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人間들이 如何히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方法의 마지막 展開가 있게된다. 그것은 바로 聖書解釋의 問題인 것이다. 從來 比較的 等한시 되어 왔던 이 問題야 말로 Pascal 의 方法의 核心이 되고 있다. 그것은 心情的 秩序와 예수 그리스도의 秩序와의 은밀한 결합을 提示하게 한다. 聖書에서 追求하는 영혼과 그리스도는 相互 交叉되고 있다. 聖書의 主張이 부정된다면 Pascal 의 모든 方法論은 崩壞된다. 그렇다면 聖書는 如何히 解釋해야 할 것인가? 聖書解釋의 問題는 Pascal 에 의하면 그 內的 發展과 護教篇 두가지의 觀點에서 다를 수가 있다. 양자는 원래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Pascal 自身の 內的發展에 의한 聖書解釋은 教會的인 사랑의 基盤위에 成立한 것으로 그것은 더욱 他的 無關心한 사람에게 까지 形成하며 올바른 聖書解釋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經驗의 實現에 協力하려고 하고 있다. 決定的 回心에서 Pascal 이 겪은 그리스도 經驗은 根本的으로 하나의 聖書解釋이 있다. 即 그것은 實在的인 眞理를 追求하는 영혼의 決定的 行爲로서의 聖書解釋이었다. 回心の 對象이 된 그리스도는 聖書의 그리스도이며 科

學者나 哲學者의 神은 아니있으며 또한 人間의 想像의 產物도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본 聖書解釋의 特質은 다음과 같다.

① 自己를 中心으로 하고있지 않다는 點 즉 그것은 心情의 秩序에 立脚하고 있다.

② 聖書의 秩序에 立脚하고 있다. ③ 그 解釋은 心情의 秩序에 立脚한 人間과 聖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와 人格的 交涉이며 解釋은 어디까지나 一方的이 아니고 相互的이며 關係的이다. ④ 精神的이며 身體的인 모든 人間의 모습이 習慣의 파괴와 形成을 통해서 解釋의 成立에 부여한다. ⑤ 全体와 教會의 指導下에 행해진다. 以上은 聖書 解釋의 受動的인 形成인 것이다. 勿論 그 이니시아티브는 어디까지나 성경과 教會를 통해서 神 自身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聖書解釋은 方法的인 意味를 동반한다. Pascal의 方法은 이러한 聖書解釋에 파괴되어 人間性에 宿命的인 未完結性을 완전히 克服하고 있다.

(Pensées)에 있어서 聖書解釋에 先行된 方法的이며 哲學的 또한 어떠한 意味로 自然神學的인 論議는 모두가 心情을 聖書의 要求에 응하기 爲한 것으로 그根本은 聖書에 의해서 規定된다. Pascal의 聖書解釋은 聖書의 二義性에 基礎를 두고 있다. 그는 聖書의 文章에는 字義와 神秘的 意義가 共存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Pascal이 企圖하려고 하는것은 元來 이 內面的이고 神秘的 意義를 解釋하는 것으로 文法的이고 字義的 解讀은 아니다. 여기에 二義性의 하나의 근거가 存在한다. 우선 理性에 의한 類推的인 解釋이 成立한다. 섬세한 정신의 適用인 것이다. 즉 一種의 擬人論이다. 그런데 聖書를 自然的으로 考察할때 많은 理解하기 곤란한 내용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使徒들의 解釋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해석되고 있다. 요컨대 聖書의 二義性은 聖書自身의 主張이다. Pascal은 聖書의 二義性과 숨어있는 神을 內面的으로 結合시키고 있다. 그것은 聖書의 行爲는 실로 人格의 行爲로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숨어있는 神이 現實的으로 모습을 나타낸 啓示의 神인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啓示의 神이라는 것을 聖書解釋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聖書는 神의 啓示를 歷史的 事實로서 나타내고 있다. 舊約의 예언, 新約의 奇蹟과 使徒들의 證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Pascal은 聖書의 事實과 그 證言者의 道德的 誠實性을 確立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聖書의 本文과 信憑性 또한 誠實性을 批評하고 있다. 聖書의 眞理가 歷史的인 事實性위에서 있는 以上 그것을 記載 하는 聖書의 本文이 正確히 確立되어야 할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래서 聖書를 歷史的인 書籍으로 간주하고 科學的 批判의 規範을 適用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聖書의 "authenticité"를 確立하려고 努力했다. 그는 聖書의 人間的 起源을 正面으로 問題삼고 있다. 그는 舊約에 關해서 특히 "모세傳" 5章에 關해서 外的 批評을 加하며 그 信憑性을 樹立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外的 批評以外에 內的 批評 행 하고 있다

아무튼 그는 예수 의 비유할 수 없는 人格에 感動되어 全能한 神을 認識하기에 이르렀

다. 그는 또한 證言者인 使徒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의 誠實性을 立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自身과 使徒間의 人格的 證言위에 立脚했던 以上 決定的으로 重大한 事實이었다고 볼 수 있다. Pascal 은 마지막으로 道德的 確立性에 立脚하고 있다. 여기에서 證言的方法이 構成되다. 그러나 이 證言의 系列은 解釋學에서 表示된것 처럼 숨어있는 神을 基礎로하는 二義性속에 內包되고 있다. Pascal 에 의하면 성서해석은 성서에 規定된 것으로 內容的으로는 그리스도의 해석이 성서해석을 規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해석은 그의 崇高한 人格에 關한 自己解釋이지만 여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의 關係의 問題에 逢着하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關係속에 進入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때 우리들은 올바른 聖書解釋을 現實的으로 理解할 수가 있을것이다. 이러한 聖書解釋을 그릇되게 解釋하게 하는 것은 人間의 Passion 이다. Pascal 에게는 聖書가 살아있는 人格的인 神의 品位를 表現한것으로 보고있다. 숨어있는 神에 媒介된 啓示의 神에 의해서만이 人間은 偶像을 타파하고 實在的인 神과 參된 交涉을 할수가 있다.

“Tout cela est la même chose prophétiser, c’est parler de Dieu, non par preuves du dehors, mais par sentiment intérieur et immédiat ”⁽¹⁷⁾

그리스도의 約束도 實現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根本은 人格的 世界에 關해서 神에 規定된 「사랑」인 것이다. 많은 誠實한 豫言者가 같은 그리스도를 豫言 했다. 이것은 無限한 힘이다. 그들은 모두 良心의 自由를 갖는 獨立的인 豫言者이기 때문이다. 自由의 複合的 統一은 無限히 強하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大集團은 이러한 人格的 複合體이다. 豫言은 人格的 確實性인 것으로 實證的인 確實性과는 本質的으로는 何等의 關係가 없다. 奇蹟이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實證的으로 人間을 說得시킬 수는 없다. 오로지 心情과 結合하므로서 비로소 人間의 心情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聖書解釋은 心情的인 聖書의 要求에 의한 準備와 예수·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사랑으로 결합하므로서 成立하는 參된 直觀을 낳게하는 創造的인 行爲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參된 神 認識은 이와같이해서 實現되어간다고 볼수가 있다. 요컨데 그것은 自己憎惡위에 세워진 神의 敎訓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聖書解釋의 究極的인 內部構造인 것이요 또한 聖靈의 活動과 參된 基盤에 밑받침이 되는 人格的 事實인 것이다.

“Ne vous étonnez pas de voir des personnes simples croire sans raisonner.
Dieu leur donne l’amour de soi et la haine d’eux-mêmes. Il in line leur
coeur à croire. On ne croie jamais d’une créance utile et de foi, si Dieu

(17) Ibid, pensées, P. 1286

n'incline le coeur; et on croira dès qu'il l'inclinera" (18)

Pascal 은 上述한 言及에서 神에 對한 사랑의 오묘한 비결을 적절하게 表現하고 있다. 참으로 겸허한 증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方法의 構造는 이와 같이 完結을 지우면서 지금까지의 歸着點은 方法上의 自己超越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IV. 結 論

Pascal의 方法은 形式的으로 또한 抽象的으로 만들어 낸 机上的 產物이 아니라 그의 内的生命의 發展을 通하여 삶 的 本質 自体에서 自覺되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點에서 本論은 그의 内的發展과 그 속에 있는 方法의 自覺의 形成을 考察해 왔다. Pascal의 方法은 本論에서 밝힌것 처럼 두가지의 實在的 中心間의 緊張, 交涉속에서 다시 말해서 實質的인 秩序속에서 成立 되고 그 發展은 徐徐히 進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飛躍的인 過程이 었다. 이러한 點에서 그의 内的發展은 Descartes의 경우 같이 良識에서 知識으로 또한 人間의 完成의 漸次的이고 連續的인 發展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Pascal은 언제나 現實에 立脚한 具體的인 思索을 행하는 思想家다. 그는 어느 特定한 範圍속에서 原理를 세워 抽象的이고 構成的인 論理를 展開하는 思想家가 아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事實로서 現實과의 統一的 體系에서의 方法이다. 사랑(charité)의 問題, 心情的 問題나 예수·그리스도의 問題, 聖書解釋의 問題나 教會의 問題도 모두가 그의 人間的이며 人格的인 生의 事實을 몇가지 主要한 契機에 응하여 考察된 것으로 그들은 서로 結合되어 그 어느 側面에 파고들어가도 結局 Pascal 全体를 보지 않는다면 그 特殊 問題가 참된 意味로 理解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元來 Pascal 에는 이들 諸 問題가 演繹的으로 結合되고 있다고는 보지않는다. 이들 諸 問題는 各各 獨立해서 現實에 뿌리를 밝고 變證법적으로 相互 結合되고 있기 때문이다. Pascal은 그 本質에 있어서 Descartes와 같은 明證主義者도 아니고 Galilei같은 實證主義者도 아니며 또한 Bacon같은 經驗論者도 아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立場은 Pascal의 立場의 構成的 要素에 지나지 않는다. Pascal의 立場은 엄밀한 意味에 있어서 神學에 究極的인 目的을 두고 있다. Pascal의 方法은 實質的인 方法으로서 規則化나 形式化 또한 機械化를 許容하지 않는다는 點은 注目할 일이다. 그의 方法은 發展的 活動과 對象에서 오는 規定과의 相關關係에 立脚하고 있다. Pascal의 方法은 처음부터 他者의 批判을 豫想하여 그 結果는 他者에 의한 自己 規定이 되고 있다. 勿論 그 것은 他者에 의한 壓制的인 自己規定이 아니라 他者의 批判에 依하여 自己가 自發的으로 스

(18) Pensées, 835, P. 1344

스로를 他者의 앞에 否定하는 것이다. 〈Provinciales〉(18)에서 思籠과 自由意志에 關한 古典的 解明은 그것을 明示하고 있다. 따라서 Pascal의 實在主義의 思想은 物理現象의 研究에 있어서 스코라 學派와 Descartes 學派의 사람들과의 論爭에도 또한 〈Provinciales〉에 대해서 모랄리스트들의 形式主義에 對한 批難에 있어서도 그리고 合理的 心理學과 自然神學에 있어서의 Descartes의 明證主義에 對한 非難에서도 언제나 一貫하여 鮮明하게 表明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意味로 實驗的 檢討의 精神이라고 볼 수도 있다. Pascal의 立場이 가지는 強度는 Pascal의 內的成長을 통하여 創造的으로 發展한 生의 反省的 自覺이며 直觀的 事實에 基礎를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ensées)의 方法은 그 自身의 體驗의 發展에 依하여 깊이 媒介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의 方法은 단지 推理와 證明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은 意味에 있어서 그의 直觀에 나타난 實在者에 對한 「證言」이라고 하는 宗教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人間分析, 賭, 聖書解釋, Pascal이 體驗한 모든 方法은 唯一한 目的을 向해 集中하고 있다. 幾何學의 方法, 纖細한 精神과 事實의 尊重 그리고 道德的 確實性의 基礎가 되는 證言도 모두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神의 靈感을 渴望하고 있다고 하겠다.

〈Bibliographie〉

- 1) B. Pascal ; Oeuvres Complètes, de Pascal, Gallimard, 1954
- 2) Louis Lafuma ; Recherches Pascaliennes, Delmas, 1949
- 3) Jean Mesnard ; Pascal, l'homme et l'oeuvre, Boivin, 1951
- 4) Louis Lafuma ; Controverses Pascaliennes, Ed. du Luxembourg, 1952
- 5) Chinard ; En lisant Pascal. Lausanne, 1948
- 6) G. Brunet ; le Pari de Pascal, Desclée de Brouwer, 1956
- 7) 안병욱 ; 世界大思想全集 Ⅱ (빠스칼) 知文閣, 1964